

## 선(禪)교(敎)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 종립대학교의 유아교육학전공생들을 중심으로 -

김 혜 순

동국대학교

---

### 〈요 약〉

---

불교교육은 연구의 주제와 담론의 성격에 따라 그 구체적 논의들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왔지만 본고에서는 종립대학교의 종파교육적 입장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의 선(禪)과 교(敎)의 이해도와 수행태도(態度)간의 관계를 사회과학조사방법으로 측정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인 종립대학생들은 불교교육적 환경안에서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종립대학생들의 불교 수행에 관한 실태조사 성격과 불교이해의 정도와 그 수행태도가 교육적 측면에서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육적 가치로서 확인되는가를 가시적으로 규명코자 하는 실증적 연구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禪) 교(敎)의 이해도와 수행태도의 경향성에서 선의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불자학생들이 비불자학생들보다 근본교리와 실천적 교설의 이해도, 기초단계의 선이해도, 그리고 수행태도의 모든 하위변인에서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학생들의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는 학생들에게서 수행적 성격을 지니는 실천적 교설의 이해도와 수행태도 중에서 사회환경적 요소와 승단적 요소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불자여부와 선(禪)과 교(敎)이해도 두가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수행태도에서는 불자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과 교의 이해도가 각각 높을수록 수행태도가 각각 높았다. 셋째, 선, 교의 이해도 그리고 수행태도간의 관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변인들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핵심 주제어 : 선(禪), 교(敎), 수행태도, 유아교육

---

## I. 서 론

동양종교로서의 불교는 동양문화와 전통의 근간이며 그 핵심이다. 전승된 불교는 연기사상, 인과응보, 윤회사상 등의 사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간존재의 깨우침이 행복과 복지의 원천임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만일 현대문명이 저 서구적 유일신 신앙의 형태아래에서 과학적 성과와 번영말고는 인류의 생활에 기여한바가 없거나 아니면 도리어 위태롭도록 조장한 것으로 본다면 불교의 교육적 측면은 의외의 교육적 성과가 기대됨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불교가 독립된 하나의 전공과목으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주제와 통합되어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음은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자신의 존재를 충실히 자각하면서 개성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체계가 존립되어야 할 인류사회의 필요성이 빚어낸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즉 불교가 갖고 있는 사상적 특수성을 교육학적 보편타당성위에 세우고자 하는 노력<sup>1)</sup>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불교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교육학적 보편성을 다시 분명히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불교의 보편적인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일단 배제하고 단지 불교교육을 불교에서의 사상적, 교리적인 가치를 교육적 관점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종파(宗派)교육적 관점<sup>2)</sup>과 유아교육적 관점으로 함께 풀어 보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불교계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sup>3)</sup>에서 불교포교의 효율적인 성공여부는 유아기의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교육현장의 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도와 그 종교적 태도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교육학에서 교사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학습자와 함께 교육의 3요소라고 말해져왔으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상회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교육학의 상식<sup>4)</sup>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은 졸업 이후 불교재단이나 사찰소속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의 불교이해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불교포교적 관점에서 유아교육의 내용과 그 교육적 방향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어진다.

불교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적 풍토이며 역사적 유산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자신을 불자로서 규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불교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의 근본 원리에 대한 회구와 진리에 대한 갈구 그리고 인간존재의 의미를 부단히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불교의 사상적 가치는 진실

1) 고진호, <불교 교육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22권, 1-14쪽.

2) 박범석, 앞의 글, 82-83쪽

3) 윤승용,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1997.

4) 박선영, <불교의 교사관>,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14권, 2002, 94쪽.

한 수행과정을 통해서만 이해된다. 다시 말해 불교의 수승한 가르침과 깨우침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경전공부, 참선, 염불, 정근 등의 수행을 위한 평생의 실천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불교적 관점에서 한 생(生)은 수행의 세월이며 연거푸 되풀이 사는 다겁(多劫)의 생 또한 끝없는 수행과정으로서의 윤회(輪回)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한 개인이 수행과정을 통해 갖게 된 불교의 이해는 곧바로 자신의 수행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믿어진다. 즉 불교의 이해는 수행에 대한 개인의 바른 식견과 실천적 의지와 크게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한번 형성된 수행태도는 이후의 수행활동을 이끄는 내면적인 심리적 요소라는 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수행 그 자체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종파교육의 근본적 목적은 결국 교육대상자의 불교 근본교리에 대한 이해와 그 실천적 수행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때 학생들의 불교이해도와 수행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불교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경전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말해져 왔다. 즉 보통 佛法이라고 일컬어지는 불교의 각종 교리와 교설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시되어 왔다. 부처님 역시 바른 법을 통해서 불교를 이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sup>5)</sup> 바꾸어 말하면 불교는 바로 경전에 나타나 있는 이 교리에 의해서 불교로서의 종교적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불교에서는 일찍부터 선(禪) 수행이 강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선(禪)이란 말은 붓다의 깊은 사유와 정각(正覺)을 통하여 불교의 실천수행이 선정(禪定)으로 체계화된 말이다.<sup>6)</sup> 선(禪)은 부처님 당시에는 정식(靜息) 또는 정려(精慮)라 불리어지던 수식관(修飾觀)의 형태로서 일종의 요가(yoga)이었는데, 근자에 와서는 아예 동양의 참선과 융합하여 독자적 불교수행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서구의 지배적인 문명에 속해있던 현대사회는 이제 새롭게 선에 대한 관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불교의 전통에 젖어있던 동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 문화권 밖에 있던 서구 여러 나라에서 비롯된 현상이다<sup>7)</sup>라는 점에서 오늘날 선 수행이 불교의 핵심적인 수행법으로서 전세계인에게 수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의 선(禪) 교(敎)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가 규명되어야 할 중요성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미래의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지니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중요성이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은 미래의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역할을 지니고 있으므로 불교포교적 관점에서 볼 때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불교이해도와 수행태도는 정확히 평가되어야 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인 미래의 유아교사들의 불교이해도와

5)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 <잡아함권 2>는 말이 경전에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또한 「중아함경의 상적유경」에도 연기법으로 불교를 설명하고 있다.

6)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1997, 272쪽.

7) 위의 글, 267쪽.

수행태도에 관한 연구는 유아기교육을 담당할 교사교육에서는 물론이고 유아기의 불교교육의 교육내용과 그 방향정립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연구 집단의 불교이해도와 수행태도 그리고 학생들의 불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평가되는 중요성이 있다. 종파교육적 입장에서 불교교육의 평가는 보다 심층적인 구조로서 전체 대학생들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표집으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유아교육학 전공 종립대학생에게서도 불교이해의 정도가 규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의 성과와 그 실태를 종립대학생들의 불교이해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검증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믿어진다.

셋째, 대학생들의 불교이해도가 어떻게 자신들의 수행태도와 관련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중요성이 있다. 더욱이 불자여부라는 요인과 불교이해도라는 두요소에 따른 수행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거의 밝혀지지 못한 연구영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한 개인의 불교수행은 자신들의 불교이해도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이해와 수행태도라는 두 요소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적 고찰로 이루어져 왔을 뿐으로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으로 두 변인간의 관계는 거의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불자여부라는 사실과 불교의 이해정도가 어떻게 수행태도와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두 요소간의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수행태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불교안의 현상을 다만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로서 불교교육의 방향정립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종립학교에서 기대되는 불교교육의 구체적 성과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게서 자신들의 불교수행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불교이해와 수행태도와 같은 불교안의 주요한 교육적 문제들이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의 양적연구로 시행되는 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종교적 수행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적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의 선과 교의 이해도, 그리고 수행태도의 경향성을 살피고, 불자여부 및 선 교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 그리고 선과 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선(禪)교(敎) 이해도와 수행태도의 경향성은 어떠한가?
2. 불자여부 및 선(禪)교(敎)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는 어떠한가?
3. 선(禪)교(敎) 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선(禪)교(敎)의 이해

일반적으로 불교를 理解한다는 것은 문자로 쓰여진 불교 경전의 교리를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불교를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인 佛, 法, 僧의 三寶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법(法)이라고 일컬어지는 불교의 각종 교의와 학설을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즉 불법(佛法)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교설이며, 나아가 후대의 불교학자가 밝힌 불교 교리까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불교철학의 개념적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方立天의 관점<sup>8)</sup> 기초하면, 佛法은 敎法, 理法, 行法, 果法의 4종류로 다시 나뉜다. 그러므로 불교에서의 교리는 곧 敎法과 理法에 해당된다. 또한 종교로서의 불교적 사상을 해(解)라하고 그에 입각한 실천행동을 행(行)이라고 분류하기도 한다.<sup>9)</sup> 요약하면 교란 경전에 나타난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학자들은 무엇보다 경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경전에 나타난 교리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것<sup>10)</sup>을 주장했다. 그것은 불교를 안다는 것은 곧 불교의 특징적인 사상을 아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은 붓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즉 중요한 것은 법, 즉 진리이지 사람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해보자면 법은 본래 Dharma인데 본래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해진다. 그러니 연기법이란 존재가 어떻게 존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본래 존재하는 것이 진리임을 믿는 인간의 기본적 자세를 일컫는다고 하겠다.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이지 인격화된 부처님을 신봉하는 종교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밖에 오온설, 삼법인설, 사성제 등의 사상은 불교의 대표적인 기본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이러한 사상들에 의해 불교는 인간의 인식범위를 넘어선 초월적 실재, 초월적 존재를 설하는 타종교와 뚜렷이 구별된다.

한편 불교의 경전에는 대표적인 근본교리만을 설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불교는 깨달음을 향한 실천적 의지라 할 수 있는 수행을 강조하는 수행자의 불교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불교의 초기경전에는 사념처·사정단·십업설·삼학·팔정도 등을 포함한 실천적 교설이 무수하게 설하여져 있다.<sup>11)</sup>

또다시 方立天의 관점<sup>12)</sup>에 의한다면 수행이란 佛法에서의 敎, 理, 行, 果중에서 세 번‘째 요

8) 方立天, 유영희 역, 《불교철학개론》, 서울: 민족사, 1992, 14-17쪽

9)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주: 광복사 광복선원, 2005, 53-55쪽.

10) 위의 글, 9-10쪽.

11) 고익진, 앞의 글, 53-55쪽

12) 方立天, 앞의 글, 14-17쪽.

소인 行法의 단계에 해당된다. 곧 말 그대로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막중하다. 그것은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체제와 달리 신을 세우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불교의 입장차이로 보여 진다. 신을 세우지 않는 불교는 신앙체제의 형성의 방법을 수행에서 구했다.<sup>13)</sup> 수행이란 불자로서의 성불을 위한 실천적 수행을 의미한다. 행이 따르지 않는 해는 다만 회론에 불과할 뿐이라서 근본교리뿐만 아니라 실천적 행(行)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전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시 말해 불교의 핵심적인 주요 가르침들은 삶의 궁극적 목표가 한 개인이 견성하여 성불하고 해탈하여 열반을 얻기 위한 진실한 내면적 통찰과 발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수행으로서의 실천적 행동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선(禪)이란 말은 곧 수행의 한 방법이다. 불교는 보통 선교로 그 특징을 구분하는데 같은 심성의 수행을 목표로 삼더라도 교종은 종교적 이론과 경의 말씀을 직접 의지하고 그 뜻에 따라 수행하려는 것이고, 선은 문자나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마음을 깨닫는 수행법이라고 알려져 왔다. 다시 말해 선은 붓다가 제시한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각자가 실천하는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은 불교의 정신을 배우고 직접 실천하여 각자가 진리를 체득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행이다. 여기에도 5교 9산파가 있으나 보통 임제종과 조동종의 양대 축으로 분류되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종과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거치면서 사교(捨敎)입선(入禪)의 추세가 정당시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선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교를 알 수 없다고 까지 이르게 되었다. 선에서는 경전의 주장을 문자상의 알음알이로 끝내지 않고 직접 좌선과 선문답이라는 선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깨달을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 전통은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으로 그 맥을 이어왔고, 조사선, 공안선, 간화선 등의 이름으로 발전되어 왔다. 선가에서는 무문관, 대도무문, 조당집, 벽암록, 불림문자, 교외별전, 언어도단, 일행삼매 등의 용어가 선수행과 관련된 구조로, 슬로건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sup>14)</sup> 그러므로 선에 대한 이해도는 성불을 위한 최상승의 수행방법으로서 직접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수행태도

일반적으로 우주의 근본원리 또는 인간의 생사와 같은 문제를 해명해주는 것을 종교사상이라고 부르고, 그에 입각한 실천행동을 종교행동이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해(解)와 행(行)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종교행동은 종교사상에 의해 행해지므로 전자의 목표와 방법은 후자의 가치내용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된다.<sup>15)</sup>

13) 岸本英夫・松本滋, 崔玄覺역, 《종교학,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72-73쪽.

14)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앞의 글, 288-292쪽.

한편 종교생활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신앙체제를 의미하는 종교적 자세가 종교적 행동과 대별되어 설명되고 있다. 종교적 자세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기본적인 마음의 부분이 개인적인 종교적 태도라고 개념화 된다.<sup>15)</sup> 그러므로 종교적 태도는 종교적 행동과 큰 관련성을 갖게 된다. 실제로 인간의 생활은 태도와 행동으로 이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행동은 마음의 내면적인 태도를 기초로 하여 나온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행태도는 한 개인에게 있어 스스로의 수행활동을 결정짓게 하는 우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태도(態度)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과 마음을 가지는 모양’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태도는 종교적 행동보다 더욱 선행적인 것이며 근원적인 것이 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의 대단한 구도적인 수행태도는 수행에서 보다 큰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 부처님이 끝내 물려섬 없는 수행을 통해 정각을 이루었듯이, 수행에 관한 태도는 사실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우선 자신의 개인적인 신심이 있다. 이것은 순수한 의미의 구도자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이세상의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갈증, 수많은 세간적 고통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종교를 찾는다. 결국 구도를 위한 진실한 신심이 원인이 되어 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다. 수행자로서의 진실한 자세를 갖고 불문에 입문하는 승려들, 그리고 세간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깨닫고자 철저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태도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의 수행생활은 보다 많은 경우에 사회 환경적인 지지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하여 관념적으로는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수행에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수행생활에 대한 사회 환경의 지지가 없으면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약화된다고 보여 진다. 그 밖에도 승단적인 요소들에 의해 세속인들의 수행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하면 수행생활에 대한 한 개인의 태도는 자신의 수행의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선과 교에 대한 이해도와 상관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여겨진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전체 대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불교관련강좌를 졸업전까지 교양필수과목으로 선택해야 하는

15) 고익진, 앞의 글, 53-55쪽.

16) 岸本英夫・松本滋, 崔玄覺역, 앞의 글, 45-48쪽.

환경에 있다. 더욱이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은 불교관련 전공과목에서 불교사상에 제한적이나마 접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어 일반적인 타대학생들이나 본교의 타학과 학생들보다는 불교를 접할 환경적 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질문지 배포는 138명에게 이루어졌으나 질문지 미회수, 미비한 자료 등으로 실제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총 130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주요내용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 모두 불자인 경우가 비불자인 경우보다 높았으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불자인 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을 불자(佛者)라고 응답한 비율은 41.5% 이고 비불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나타났으나 한학기 불교관련수업이 자신들의 불교 이해도를 높이는 데 공헌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은 91.5%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비는 전원 여학생들만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연구대상 집단은 남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는 학과이고 질문지 배포 당시 재학하고 있는 남학생의 수는 2명이었으나 모두 본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범 주    | N(%)      |
|-------------------|--------|-----------|
| 연령                | 20세 이하 | 31(23.8)  |
|                   | 21-22세 | 61(46.9)  |
|                   | 23-24세 | 22(16.9)  |
|                   | 25세 이상 | 16(12.3)  |
| 어머니 종교            | 불교     | 92(70.8)  |
|                   | 그외     | 38(29.2)  |
| 아버지 종교            | 불교     | 77(59.2)  |
|                   | 그외     | 53(40.8)  |
| 본인의 불자여부          | 불자     | 54(41.5)  |
|                   | 비불자    | 76(58.5)  |
| 재적사찰              | 있다     | 34(26.2)  |
|                   | 없다     | 96(73.8)  |
| 불교관련수업의 불교이해 공헌여부 | 있다     | 119(91.5) |
|                   | 없다     | 11( 8.5)  |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척도들은 관련 문헌조사를 기초로 구성된 후 불교학전공의 교수님과 스님의 2인에게서 그 내용타당도를 검증받고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이다. 모든 척도

는 '전혀 아니다'와 '매우 그렇다'의 5단계의 평가를 위한 LiKert식 5점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립 대학생들의 선(禪) 교(敎)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선교이해도란 교(敎)에 대한 이해도, 선(禪)에 대한 이해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불교에서의 선 교 이해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1) 교(敎) 이해도

본 척도는 불교 경전의 교리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5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연기법이란 만물의 현상이나 존재가 단독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이다. 위의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교 이해도는 方立天<sup>17)</sup>의 불교철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정의를 받아들여 불교교리에서의 이해의 정도로 정의되었다. 교 이해도는 근본교리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적 교설에 관한 이해도의 두가지 하위 요인으로 다시 분류된다. 각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근본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고, 실천적 교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교의 이해도의 하위변인인 근본교리에 관한 척도의 신뢰도는 .76이고, 실천적 교설에 관한 척도의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 2) 선(禪) 이해도

본 척도는 선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참선이 무엇인지 안다.', '원효 스님의 일대기를 알고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선 이해도는 직접 좌선과 선문답이라는 선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깨달을 것을 지향하는 선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로 정의되었으며, 본 척도인 선 이해도는 기초수준의 이해와 실참단계의 이해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기초단계가 .90 으로, 실참단계가 .80으로 나타났다.

### 3) 수행태도

본 척도는 수행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21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높은 점수는 곧 불교수행을 위한 종교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항에 대한 예를 들면 '수행에는 스스로의 구도적인 신심이 가장 중요하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행태도는 한 개인에게 있어 스스로의 종교성의 방향을 결정짓게 하며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정의된다. 질문지 구성에는 가족적 지지가 하위변인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료분석과정에서 위 척도의 신뢰도가 낮게 나와 이후의 분석과정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불자로서의 수행태도에 관련되는 요소들은

17) 方立天, 앞의 글, 14-17쪽에서의 개념을 수용한다.

개인적 신심, 사회 환경적 요소, 승단적 요소의 세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각각 .65, .82, .68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척도 개발을 위해 관련문헌들에 대한 고찰이 2006년 3월부터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질문지 초안이 2006년 5월에 만들어졌다. 구성된 연구척도들은 불교학전공 교수님과 스님 2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질문지로 완성되었다. 질문지 배포와 수거가 2006년 6월에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PC용 통계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먼저, 선교 이해도, 수행태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불자여부와 선, 교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체 변수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종립 대학생들의 선(禪)교(敎) 이해도와 수행태도의 경향성

#### 1) 선(禪) 교(敎)의 이해도, 그리고 수행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학생의 불교교리 이해도, 선 이해도, 수행태도에서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다음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선과 교의 이해도 그리고 수행태도에서 선의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즉 선 이해도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하위요인의 평균값이 교 이해도와 수행태도를 구성하는 모든 하위요인들 중에서도 낮게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선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교 이해도보다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부가하면 이러한 해석은 선과 교의 이해도와 수행태도를 측정하고자 개발된 본 연구도구가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므로 응답자의 반응이 점수화되는 과정에서 평균값의 해석에 기초한다. 교이해도 중에서는 실천적 교설 이해도  $M=3.12(.66)$ 보다는 근본교리의 이해도  $M=3.59(.46)$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수행에 대한 실천적 교설의 이해도보다는 불교의 근본교리라는 사상적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이해도는 기초단계가  $M=2.46(.70)$ 으로 실참단계  $M=2.11(.65)$ 보다 더 높았다. 이것은 성불을 위한 최상승의 수행방법으로서 선에 관한 관심과 이해의 정도가 아직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수행태도는 개인적 신심  $M=3.55(.59)$ , 사회환경적 요소  $M=3.40(.69)$  그리고 승단

〈표 2〉 종립대학생들의 선 교 이해도와 수행 태도의 전반적 경향

|          |        | M(SD)     |
|----------|--------|-----------|
| 교<br>이해도 | 근본교리   | 3.59(.46) |
|          | 실천적 교설 | 3.12(.66) |
| 선<br>이해도 | 기초단계   | 2.46(.70) |
|          | 실참단계   | 2.11(.65) |
| 수행태도     | 개인적 신심 | 3.55(.59) |
|          | 사회환경   | 3.40(.69) |
|          | 승단     | 3.30(.85) |

적 요소  $M=3.30(.85)$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신심의 수행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들은 수행에서 무엇보다 개인적인 신심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아울러 <표 1>에 나타나있듯이 학교의 불교관련 수업이 학생들 자신들의 불교이해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응답한 높은 비율은 종교교육적 포교노력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성과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 2) 불자여부에 따른 선(禪) 교(敎) 이해도와 수행태도

본 연구대상의 불자여부에 따른 선교 이해도와 수행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하위영역별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에 의하면, 학생들의 선 이해도에서 실참단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서 불자와 비불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교 이해도를 보면 근본교리에서 불자학생들이  $M=3.72(.47)$ 이고, 비불자학생들이  $M=3.52(.46)$ 로 유의한 차이( $t=2.27, p<.05$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실천적교설에서 불자학생들이  $M=3.37(.60)$ 이고, 비불자학생들이  $M=2.99(.65)$ 로 유의한 차이( $t=3.08, p<.01$ )를 나타내고 있다. 이점은 불자학생들이 비불자학생들보다 근본교리 이해도와 실천적교설의 이해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선 이해도는 기초단계에서만 불자학생들이 더 높아 유의한 차이( $t=3.52, p<.01$ )가 나타났다. 즉 불자학생들의 기초단계 이해도가  $M=2.72(.84)$ 이고, 비불자학생들이  $M=2.27(.51)$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불자학생들이 비불자학생들보다 기초단계의 선 이해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수행태도는 사회환경적 요소( $t=3.83, p<.001$ ), 승단적 요소( $t=3.58, p<.001$ ), 개인적 신심( $t=3.37, p<.01$ )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불자학생들이 비불자학생들보다 수행태도에서 사회환경적 요소, 승단적 요소, 그리고 개인적 신심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

〈표 3〉 종립대학생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선 교 이해도 및 수행태도

|          |          | 불자(N=42)   | 비불자(N=75) | t       |
|----------|----------|------------|-----------|---------|
|          |          | M(SD)      | M(SD)     |         |
| 교<br>이해도 | 근본교리     | 3.72(.47)  | 3.52(.46) | 2.27*   |
|          | 실천적 교설   | 3.37(.60)  | 2.99(.65) | 3.08**  |
| 선<br>이해도 | 기초단계     | 2.72(.84)  | 2.27(.51) | 3.52**  |
|          | 실참단계     | 2.22(.81)  | 2.02(.48) | 1.60    |
| 수행태도     | 개인적 신심   | 3.75(.60)  | 3.41(.55) | 3.37**  |
|          | 사회환경적 요소 | 3.66(.73)  | 3.21(.61) | 3.83*** |
|          | 승단적 요소   | 3.60(1.03) | 3.08(.62) | 3.58*** |

\* p&lt;.05, \*\* p&lt;.01, \*\*\* p&lt;.001

음을 의미한다.

### 3)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대학생들의 선(禪) 교(敎)의 이해도와 수행태도

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의 종교에 따른 선과 교의 이해도, 수행 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하위영역별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교 이해도의 근본교리의 이해도에서는 불자여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천적 교설에서 불자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불자어머니들이 비불자어머니들보다 실천적 교설의 이해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이다. 선이해도는 하위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4〉 종립 대학생들의 모의 종교에 따른 선과 교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

|          |          | 불자(N=83)  | 비불자(N=34) | t      |
|----------|----------|-----------|-----------|--------|
|          |          | M(SD)     | M(SD)     |        |
| 교<br>이해도 | 근본교리     | 3.61(.45) | 3.52(.67) | .91    |
|          | 실천적 교설   | 3.18(.67) | 2.92(.52) | 2.03*  |
| 선<br>이해도 | 기초단계     | 2.53(.71) | 2.28(.66) | 1.84   |
|          | 실참단계     | 2.16(.70) | 1.97(.48) | 1.57   |
| 수행태도     | 개인적 신심   | 3.59(.57) | 3.46(.64) | 1.06   |
|          | 사회환경적 요소 | 3.48(.68) | 3.18(.70) | 2.27*  |
|          | 승단적 요소   | 3.43(.88) | 2.99(.68) | 2.81** |

\* p&lt;.05, \*\* p&lt;.01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소( $t=2.27, p<.05$ ), 승단적 요소( $t=2.81,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불자여부에 따른 수행태도의 사회환경적 요소에서 불자어머니들이  $M=3.48(.68)$ 이고, 비불자어머니들이  $M=3.18(.70)$ 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t=2.27, p<.05$ )를 보이고 있고, 승단적 요소에서 불자어머니들이  $M=3.43(.88)$ 이고, 비불자어머니들이  $M=2.99(.68)$ 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 $t=2.81, p<.01$ )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불자어머니들보다 불자어머니들의 수행태도에서 승단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가 더 높은 것이며, 아울러 어머니들의 불자여부가 자녀들의 불교이해도와 수행태도에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 4)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선(禪) 교(敎)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

본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중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선과 교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요인의 하위영역별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표 5>에 의하면,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선 교 이해도와 수행태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앞의 <표 4>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되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아버지들의 불자여부는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만큼 자녀들의 불교이해도나 수행태도에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사회에서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 비교했을 때 자녀들의 종교성 발달에는 주변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 아버지의 종교에 따른 선(禪) 교(敎)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

|          |          | 불자(N=69)  | 비불자(N=47)  | t    |
|----------|----------|-----------|------------|------|
|          |          | M(SD)     | M(SD)      |      |
| 교<br>이해도 | 근본교리     | 3.59(.47) | 3.56(.44)  | .19  |
|          | 실천적 교설   | 3.19(.71) | 2.98(.52)  | 1.75 |
| 선<br>이해도 | 기초단계     | 2.47(.71) | 2.43(.70)  | .30  |
|          | 실참단계     | 2.15(.67) | 2.04(.62)  | .90  |
| 수행태도     | 개인적 신심   | 3.55(.57) | 3.53(.63)  | .26  |
|          | 사회환경적 요소 | 3.43(.64) | 3.31(.75)  | .96  |
|          | 승단적 요소   | 3.34(.65) | 3.24(1.09) | .67  |

\*  $p<.05$

## 2. 불자여부 및 선교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는 어떠한가?

본 장에서는 불자여부와 선교이해도가 함께 주는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수행태도가 어

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불자여부 및 선 교 이해도에 따라 수행태도를 이원변량분석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 1) 불자여부 및 교의 이해에 따른 수행태도

불자여부 및 교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 〈표 6〉 불자여부와 교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           |           |
|--------------------------------------|-----------|-----------|
| 교의 이해도<br>불자 여부                      | 높은 집단     | 낮은 집단     |
|                                      | M(SD)     | M(SD)     |
| 불자                                   | 3.98(.41) | 2.98(.53) |
| 비불자                                  | 3.73(.80) | 3.05(.42) |

<표 6>의 결과에서 나타난 수행태도가 불자여부와 교의 이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 〈표 7〉 불자여부와 교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 |        |     |       |          |
|-----------------------------|--------|-----|-------|----------|
| 변산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불자 여부                       | .13    | 1   | .13   | .46      |
| 교이해도                        | 10.98  | 1   | 10.98 | 39.39*** |
| 불자 여부*교이해도                  | .38    | 1   | .38   | 1.35     |
| 오차                          | 21.19  | 76  | .28   |          |
| 합계                          | 946.98 | 80  |       |          |

\*\*\*  $p < .001$

<표 7>에 의하면, 종립대학생들의 불교 수행태도는 교(敎)의 이해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F=39.39$ ,  $p<.001$ )가 있었으나 불자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불자여부와 교이해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의 이해도에 따라서는 수행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불자여부에 따라서는 수행태도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교의 이해도와 불자여부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없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불자여부와 상관없이 교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불교수행태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종파교육적 입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보아진다. 즉 학생들의 수행태도의 개발에는 현재의 불자여부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교(敎)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므로 전체 학생들의 불교이

해수준을 높이고자하는 종파교육의 교육적 노력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위의 결과는 또한 학생들 자신들에게도 자신의 종교성 보유여부를 떠나 불교의 사상적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 2) 불자여부 및 선의 이해에 따른 수행태도

불자여부 및 선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 〈표 8〉불자여부와 선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평균과 표준편차 |                |                |
|------------------------------------|----------------|----------------|
| 불자여부 \ 선의 이해도                      | 높은 집단<br>M(SD) | 낮은 집단<br>M(SD) |
| 불자                                 | 3.71(.53)      | 3.28(.80)      |
| 비불자                                | 3.46(.84)      | 3.20(.48)      |

위의 결과에서 나타난 수행태도가 불자여부와 선의 이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 〈표 9〉 불자여부와 선의 이해도에 따른 수행태도 |        |     |      |       |
|-----------------------------|--------|-----|------|-------|
| 변산원                         | 제곱합    | 자유도 | 평균제곱 | F     |
| 불자 여부                       | .52    | 1   | .52  | 1.31  |
| 선의이해도                       | 2.17   | 1   | 2.17 | 5.41* |
| 불자 여부*선의이해도                 | .12    | 1   | .12  | .30   |
| 오차                          | 31.26  | 78  | .40  |       |
| 합계                          | 959.99 | 82  |      |       |

\*p<.05

<표 9>에 의하면, 대학생의 불교 수행태도는 선의 이해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F=5.41$ ,  $p<.05$ )가 있었으나 불자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불자여부와 선의 이해도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자여부와 관계없이 선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불교 수행태도가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결과는 <표 7>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 불자여부에 의미를 두는 것 보다는 열린 교육적 입장으로 전체 학생들의 선(禪)이해를 돕도록 지원하는 것이 수행태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 3. 선(禪)과 교(敎)이해도 및 수행태도간의 관계

대학생들의 선과 교의 이해도 및 수행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선(禪)교(敎)이해도 및 수행태도간의 관계는  $r=.64-.91$ 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거의 모든 하위변인에서도 유의한 정적상관( $r=.24-.96$ )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인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곧 선과 교에 대한 이해도는 佛法에서보면 교리와 행으로 나뉘어지지만 결국 불법(佛法)안에 포함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불교경전의 방대한 내용에는 근본적인 핵심교리들과 함께 무수한 실천적 교설 즉 수행에 관한 가르침들이 설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대부분 정적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이해를 현실적으로 검증해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표 10〉 선(禪)과 교(敎)이해도 및 수행태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교         |        |        |        |        |        |        |        |        |        |    |
| 근본교리      | .91*** |        |        |        |        |        |        |        |        |    |
| 실천적 교설    | .96*** | .74*** |        |        |        |        |        |        |        |    |
| 선         | .64*** | .54*** | .64*** |        |        |        |        |        |        |    |
| 기초 단계     | .68*** | .60*** | .67*** | .95*** |        |        |        |        |        |    |
| 실참 단계     | .51*** | .41*** | .53*** | .94*** | .77*** |        |        |        |        |    |
| 수행 태도     | .64*** | .59*** | .61*** | .45*** | .48*** | .37*** |        |        |        |    |
| 개인적 신심    | .62*** | .59*** | .59*** | .36*** | .44*** | .24*   | .88*** |        |        |    |
| 사회 환경적 요소 | .58*** | .53*** | .55*** | .37*** | .40*** | .30**  | .93*** | .80*** |        |    |
| 승단적 요소    | .58*** | .49*** | .58*** | .50*** | .49*** | .44*** | .94*** | .73*** | .80*** |    |

\*\*  $p<.01$ , \*\*\*  $p<.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교사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할 종립 대학생들의 선(禪)교(敎) 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선(禪)과 교(敎) 이해도 및 수행태도의 경향성에서는 우선 선의 이해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근본교리의 이해도가 실천적교설의 이해도보다 높았으며, 기초

단계의 선 이해도가 실참단계의 선 이해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행태도에서는 개인적 신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는 선(禪)이 깨달음을 위한 수승한 수행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생들에게 아직도 그 이해의 정도가 교의 이해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극적인 선 수행의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문자를 떠난 수행방법을 추구하는 선에 대한 이해도가 문자로 씌여진 근본교리를 뜻하는 교에 대한 이해도보다 학생들에게 낮게 나타난 것은 일견 선과 교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증거로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과 교의 이해도는 불교의 깨달음의 질적인 수준을 묻는 차원이거나 불교에서 선과 교를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식의 양을 묻는 차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에게 선의 이해도가 교의 이해도보다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은 선수행에 대한 지식의 양이 교(敎)에 관한 지식의 양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가하면, 학생들의 선과 교의 이해도는 평가당시의 본인의 응답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각 개인이 갖고 있던 불교의 선 수행이나 교의 이해의 정도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불자여부를 떠나 종립학교의 불교관련 수업을 수강한 경험은 당연히 자신들의 불교에서의 선과 교의 이해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연구결과에 기초하면 학생들의 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선 수행에 관한 지식의 정도와 그 이해의 양을 높일 수 있는 불교교육이 보다 심층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즉 불교관련 강좌가 지나치게 교리적인 설명에 치우치지 않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직접적인 선수행의 경험 또한 유익하다고 사료된다.

불자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선 교 이해도와 수행태도에서는 선이해도의 실참단계를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자학생들이 비불자 학생들보다 대체적으로 선과 교의 이해도와 수행태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이는 불자라고 스스로 밝힌 학생들이 비불자라고 밝힌 학생들보다 불교이해가 높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준 의미가 있다. 아마도 불자라는 스스로의 믿음이나 태도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알기 위한 노력을 추구해왔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그러나 선 이해도의 실참단계에서 불자와 비불자간의 차이에서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선 이해도가 대부분 기초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선 이해도가 기초단계를 벗어나 실참단계에 이르면 불자여부라는 사실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자여부가 의미 없는 영역이 선과 교의 이해도와 수행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의 실참단계의 이해도라는 사실은 불교포교적인 입장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선의 이해를 도모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불교포교적인 노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선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비불자 뿐만 아니라 불자들에게도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다.

또한 부모의 불자여부에 따른 선과 교 이해도와 수행태도에서는 아버지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는 학생들의 실천적 교설의 교이해도와 승단적 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의 수행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어머니들의 불자여부가 학생들의 교이해도 중의 하위변인인 실천적 교설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는 사실은 불교포교적 입장에서 의미 있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수행 그리고 더 나아가 수행에서 승단적요소와 사회환경적 요소에 대한 자녀들의 지각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의 종교 활동이 유아기 자녀양육에서의 지배적이고 중요한 역할로서 뿐만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는 종교성의 방향과 실천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규명해준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불교 이해를 높이려는 종파교육적 노력에서는 가족적 단위의 종교 활동을 더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 얻는 또 다른 시사점은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종립대학생들의 선교 이해도와 수행태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장차 유아기 교사로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래의 부모로서의 종교적 소양을 높이는 예비부모교육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불교이해도와 수행태도를 높이려는 구체적 노력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강구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가족적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노력이 장기적으로 보아 불교포교에서의 효과성이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불교관련수업이 자신들의 불교사상이해에 공헌하였다고 응답한 높은 비율은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의 노력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추후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불교 교육을 위한 종파교육적 노력은 학생들의 불교이해를 돕는 강력한 교육적 방안이 된다고 믿어진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불자여부 및 선과 교이해도라는 두 가지의 변인에 따른 수행태도에서는 불자여부와는 관계없이 선이나 교의 이해도가 각각 높을수록 수행태도 역시 각각 높았다. 이점은 학생들의 수행태도에는 불자여부라는 사실보다 선이나 교의 이해도가 높은 것이 더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이 갖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수행태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결과는 학생들의 수행태도의 개발에는 현재 당시의 불자여부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선(禪)과 교(敎)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더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종립학교의 존재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 즉 불교의 교육학적 기초가 보편화되어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위의 연구결과는 그러므로 학생들을 포함한 대중을 향한 불교포교 노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상적인 믿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해준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본 결과는 첫번째 연구문제에서 불자여부가 수행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던 연구 결과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차이는 불자여부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수행태도를 보았을 때와 불자여부와 선과 교의 이해도의 상호작용효과에 따른 수행태도로 보았을 때와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두 번째 연구문제에서는 불자여부라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선과 교의 이해도가 각각 수행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이므로 종파교육을 위한 방향정립에서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시사점을 불교 포교적 관점으로 요약하면 개개인의 수행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자여부와 상관없이 불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즉 템플 스테

이, 문화적 체험, 선수행의 경험 등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종단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세 번째 연구문제이며 본 연구의 제목이기도 한 선(禪)교(敎)의 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는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모든 변인들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제로 선과 교는 결국 모두 불교안의 내용이다. 일찍이 선과 교의 가르침에서 선을 통하지 않고는 교를 알 수 없다거나 교를 알지 못하고는 선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상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수행태도 또한 경전에서의 실천적 교설인 수행의 가르침과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관련 변인들 사이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온 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이해를 가시적으로 검증해주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수행태도에는 선이나 교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선과 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과 교의 이해도가 어느 쪽으로 높든지 수행태도에 유의하게 상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포교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의 선이나 교 어느 방향으로든 불교이해를 높이는 것이 수행태도를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불교이해가 수행태도라는 한 개인의 가치관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위 결과는 불교가 그 자체로서 보편타당한 교육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육과정임을 사회과학조사의 통계적 수치로서 증명해준 의미가 있다고 믿어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추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의 이해 그 중에서도 선의 이해가 언어로 표현된 문항에 대한 응답의 내용으로 측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측정문항에서의 질문범위 내에서만 불교의 이해가 평가되었다는 점, 따라서 불교이해와 수행태도에서의 개인간 차이는 엄밀하게 측정될 수 없었다는 한계성이 있다.

둘째, 불교의 이해도와 수행태도가 사회과학적 조사연구방법으로 규명된 선행연구가 희소하여 관련변인들간의 관계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약하다는 한계성이 있다.

셋째, 표집에서의 특별한 제한성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선(禪)과 교(敎)의 이해도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한 수준의 질적인 이해도가 아니라 선이나 교에 관해 학생들에게 이해된 지식의 내용이나 지식의 양을 측정할 수밖에 없었던 비교적 양적인 측정에 치우쳐져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즉 광대무변한 붓다의 깨달음과 교설을 극도로 분별화되고 특성화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구조 내의 한 교육 분야인 유아교육적 관점을 통해 사회과학조사 연구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문적으로 용이한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육학을 전공하는 종립 대학생들의 불교 이해도와 수행태도를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종립학교의 불교교육의 성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의가 있다고 믿

어진다. 아울러 미래의 유아교사가 될 학생들의 불교이해의 정도와 수행태도가 교육적 측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중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 그리고 종교로서가 아닌 교육학적 측면에서 불교가 학생들 개개인의 수행태도라는 가치관에 보편적으로 기여하는 척도라는 점이 규명되었다는 면에서 본 연구가 종파교육적 입장에서 중립학교의 대학생들의 불교교육뿐만 아니라 유아기 교사들을 위한 불교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공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표집으로 일반대학생들과 중립대학생들의 불교이해도가 평가되고 더 나아가 종파교육의 구체적 성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의 종단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권은주, 《불교아동학개론》, 서울: 양서원, 1998.
-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주: 광복사 광륜선원, 2005
- 고진호, <불교교육학 연구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22권, 2006.
- 박범석, <인간본성에 대한 종교교육적 접근>,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16권, 2003.
- 박선영, <한국인의 정체성 문제와 종교교육>,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16권, 2003.
- 윤승용,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1997.
- 황옥자, <유아의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종교인식 및 전망>,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종교교육학연구》 제 9권, 1999.
- 方立天, 유영희 역, 《불교철학개론》, 서울: 민족사, 1992.
- 岸本英夫·松本滋, 崔玄覺역, 《종교학,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

원고접수: 2006년 11월 15일 1차심사: 11월 25일 게재승인일: 12월 8일

연구자 소개: 김혜순

- ① 전공: 가정학 / 아동학 / 소속: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② 관심영역: 불교유아교육, 유아교육연구동향
  - ③ 주요논저: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및 관련변인 연구>, <유아의 지능, 가정양육환경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만족도와와의 관계: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외
  - ④ E-mail: heidi77@dongguk.ac.kr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among understanding Zen, The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al Attitude

Kim, Hye-S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understanding Zen, the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al attitude. The subjects were 130 students of Dongguk University in Gyeongju-city whose major was Early Childhood Education.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students' understanding of Zen was the lowest factor among understanding Zen, the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al attitude. The Buddhist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Zen,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al attitude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Buddhist students' except those on a practical Zen course. Second, the higher students' understanding of Zen or doctrine of Buddhism showed a higher Practical attitude. Thir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understanding of Zen and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al Attitude of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Key words* : Zen, Doctrine of Buddhism, Practical attitude, Early child education

##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대학생들의 불교이해 및 수행태도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질문지에 응답된 내용들은 단지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지게 될 것임을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는 질문지의 문항들이 다소 많습시다만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협조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0 0 6. 0 6

동국대학교 유아교육과  
김 혜 순 합장

♣ 다음은 응답자분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 응답자분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20세 이하                      ②21세- 22세                      ③ 23세-24세  
 ④25세-30세                      ⑤31세이상
2. 어머니와 아버지의 종교는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    ) 아버지(    )  
 ①불교                              ②기독교                              ③천주교  
 ④원불교                              ⑤종교없음                              ⑥기타
3. 두분 부모님들의 월수입은 각각 어떻게 되십니까? 어머니 (    ) 아버지(    )  
 ①200만원 미만                      ②200-300만원 이하                      ③300-400만원 이하  
 ④400-500만원 이하                      ⑤500만원 이상
4.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    ) 아버지 (    )  
 ①사무직(계장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기술직(교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연예인, 체육인, 종교관계 종사자)  
 ②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판검사, 과학자, 회계사)  
 /관리직(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③자영상공업, 자영기술자, 자영서비스업  
 ④피고용 기능인(공장 숙련공, 이.미용, 운전 등 서비스업, 피고용인)  
 ⑤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최고위 관리  
 ⑥직업이 없음                      ⑦전업주부  
 ⑧기타(직접 적어주세요 : 어머니                      /아버지                      )

※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1. 응답자의 성별: 남(    ) 여(    )
3. 형제의 수를 적어주세요. 남 (    )명 여(    )명
3. 자신의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적어주세요.    년,    월,    일
4. 스스로를 불자라고 생각합니까? 예 (    ), 아니오(    )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기간을 적어주세요.    년    개월, 불자가 아니다(    )
5. 불자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찰이나 포교당이 있습니까? 또는 불교수행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합니까?  
 예(    ), 아니오(    )
6. 대학에서 불교관련 수업이 불교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 아니오(    )

## 〈부록 1〉 교(敎)에 관한 이해도

아래의 문항들은 불교의 가르침에 관한 이해도를 묘사하는 특성들입니다. 각각의 특성들을 자세히 읽으신 후, 전혀 그렇지 않다'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다섯 가지의 평가 중에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칸에 체크해주시요. 각각의 항목을 읽었을 때의 첫 느낌에 따라 자신의 최근까지의 이해정도를 평가하시면 됩니다.

| 문항 | 나는.... 라고 생각한다.                            | 전혀<br>아니다 | 조금<br>아니다 | 보통<br>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 연기법은 불교의 사상이다.                             |           |           |          |           |           |
| 2  | 연기법이란 만물의 현상이나 존재가 단독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           |           |          |           |           |
| 3  | 12연기법은 無明(무명)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           |           |          |           |           |
| 4  | 無明(무명)은 일체세계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뜻한다.              |           |           |          |           |           |
| 5  | 일체의 인연화합을 이루는 요소로서 색,수,상, 행,식이 오온 이 있다.    |           |           |          |           |           |
| 6  | 불교는 운명론적이다.                                |           |           |          |           |           |
| 7  | 윤회사상은 존재의 인연과가 되풀이됨을 나타낸다.                 |           |           |          |           |           |
| 8  | 제법무아가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           |           |          |           |           |
| 9  | 아함경이란 유교의 경전이다.                            |           |           |          |           |           |
| 10 | 제행무상이 무엇을 말하는지 안다.                         |           |           |          |           |           |
| 11 | 고, 집, 멸, 도 사성제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안다.              |           |           |          |           |           |
| 12 | 반야심경은 일체 존재에 대한 집착이 허망하다는 공사상을 담고 있다.      |           |           |          |           |           |
| 13 | 부처님의 본생담이나 불전설화를 들어본적이 있다.                 |           |           |          |           |           |
| 14 | 팔정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           |
| 15 | 불교에서의 일체세계는 6근과 6경의 12처로 설명된다.             |           |           |          |           |           |
| 16 | 불교에서 설하는 일체세계는 인간의 인식작용에서 만들어 진 유위의 세계이다.  |           |           |          |           |           |
| 17 | 6근과 6경으로 설명되는 12처설은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 이며 인식관이다. |           |           |          |           |           |
| 18 | 돈오점수는 불교의 수행방법을 나타낸다.                      |           |           |          |           |           |
| 19 | 불교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허물은 자신의 집착에 기인한 다고 설명한다.    |           |           |          |           |           |

- 
- 20 일체중생실유불성이 무슨 말인지 안다.
- 
- 21 경전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 
- 22 계 정, 혜 삼학이 무엇인지 안다.
- 
- 23 자타일시 성불도가 어떠한 의미인지 안다.
- 
- 24 선교일치의 사상이 무엇인지 안다.
- 
- 25 불교에는 업에 의한 윤회사상이 있다.
- 
- 26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를 안다.
- 
- 27 보시는 물질적인 보시를 말한다.
- 
- 28 불, 법, 승 삼보가 무엇인지 안다.
- 
- 29 팔정도에서 정견은 바른 견해를 뜻한다.
- 
- 30 지계란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서 범하지 않는 것이다.
- 
- 31 인욕이란 온갖 욕됨을 참고 마음을 고요히 안주시키는 것이다.
- 
- 32 불교는 구도를 위한 개인의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

## 〈부록 2〉 선에 대한 이해도

| 문항 | 나는.... 라고 생각한다.                          | 전혀<br>아니다 | 조금<br>아니다 | 보통<br>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 화두가 무엇인지 안다.                             |           |           |          |           |           |
| 2  | 참선이 무엇인지 안다                              |           |           |          |           |           |
| 3  | 간화선이 무엇인지 안다.                            |           |           |          |           |           |
| 4  | 선종과 교종의 차이를 안다.                          |           |           |          |           |           |
| 5  | 불립문자의 의미를 안다.                            |           |           |          |           |           |
| 6  | 중국의 조사들을 한사람 이상 안다.                      |           |           |          |           |           |
| 7  | 우리나라 역대 선지식을 한사람이상 안다                    |           |           |          |           |           |
| 8  | 육조단경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           |           |          |           |           |
| 9  | 화두참구는 마음을 드러내는 공부이다.                     |           |           |          |           |           |
| 10 | 조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다.                     |           |           |          |           |           |
| 11 | 공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           |           |          |           |           |
| 12 | 중국의 임제 선사를 들어본 일이 있다.                    |           |           |          |           |           |
| 13 | 달마대사를 초조라고 부르는 까닭을 알고있다.                 |           |           |          |           |           |
| 14 | 선지식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                      |           |           |          |           |           |
| 15 | 2조와 3조 대사가 누구인지 안다.                      |           |           |          |           |           |
| 16 | 화두간택은 승속과 무관하며, 모든 스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           |          |           |           |
| 17 | 화두는 깨침의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강렬한 자기 확신에서 출발한다. |           |           |          |           |           |
| 18 | 벽암록이 무슨 책인지 알고 있다.                       |           |           |          |           |           |
| 19 | 무문관이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다.                      |           |           |          |           |           |
| 20 | 원효스님의 일대기에 대해 알고 있다.                     |           |           |          |           |           |
| 21 | 마조스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           |           |          |           |           |
| 22 | 화두점검의 필요성을 안다.                           |           |           |          |           |           |
| 23 | 화두간택을 받은 적이 있다                           |           |           |          |           |           |
| 24 | 화두 간택 이후 화두 점검을 받은 사실이 한번이라도 있다.         |           |           |          |           |           |
| 25 | 공안점검을 위해 큰스님을 찾고 있다.                     |           |           |          |           |           |
| 26 | 인생사 의문으로 큰스님을 찾았다                        |           |           |          |           |           |
| 27 | 간화선이란 경전에 의지하는 수행법이다.                    |           |           |          |           |           |

### 〈부록 3〉 수행태도

다음의 문항들은 수행태도를 나타내는 내용들입니다. 문항들에 대한 다섯 가지의 평가 중에서 자신의 응답을 나타낸다고 보여 지는 것에만 체크해 주세요.

| 문항 | 나는 수행을 위해서는.... 라고 생각한다.                        | 전혀<br>아니다 | 조금<br>아니다 | 보통<br>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 수행에는 불자 자신의 신심이 중요하다.                           |           |           |          |           |           |
| 2  | 수행을 이끌 사찰이나 포교당의 책임이 있다.                        |           |           |          |           |           |
| 3  | 불교의 우수성이 사회저변에 인식되어야 한다.                        |           |           |          |           |           |
| 4  | 스님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중요하다.                       |           |           |          |           |           |
| 5  | 선지식이 많이 존재해야 한다.                                |           |           |          |           |           |
| 6  | 큰스님을 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한다.                       |           |           |          |           |           |
| 7  | 사찰이나 포교당에서의 정기적인 참선공부의 기회가 제공<br>되어야 한다.        |           |           |          |           |           |
| 8  |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불자교육이 있어야 한다.                        |           |           |          |           |           |
| 9  | 가정생활과 종교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사찰측의 적<br>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           |          |           |           |
| 10 |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부모교육과 어린이교육이 사<br>찰측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           |          |           |           |
| 11 | 신행상담이 불교교육기관에 체계화되어야 한다.                        |           |           |          |           |           |
| 12 | 무엇보다 사회환경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           |           |          |           |           |
| 13 | 사회참여에 적극적이기보다는 공부하는 수행자 스님들이<br>많아야 한다.         |           |           |          |           |           |
| 14 | 선과 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          |           |           |
| 15 | 사회적 성공을 한 불자들의 모범적 수행이 필요하다.                    |           |           |          |           |           |
| 16 | 가정의 행복과 수행생활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           |           |          |           |           |
| 17 | 가정생활은 희생하더라도 훌륭한 종교적<br>신행은 평가받아야 한다.           |           |           |          |           |           |
| 18 | 불교가 보편적이고 수승한 진리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다<br>가와야 한다.        |           |           |          |           |           |
| 19 | 사찰이나 포교당이 거주지 가까이 있어야 한다.                       |           |           |          |           |           |
| 20 | 사찰이나 포교당에서 참선수행하는 스님이 많아야 한다.                   |           |           |          |           |           |

|    |                                              |
|----|----------------------------------------------|
| 21 | 무속과 정법이 구별되어야 한다.                            |
| 22 | 불교에 대한 구도심이 중요하다.                            |
| 23 | 사찰은 그 이용시설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
| 24 | 불교를 믿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br>는 인식이 필요하다. |
| 25 | 수행생활에서 경제적 부담이 없어야 한다.                       |
| 26 | 함께 하는 도반이 매우 필요하다.                           |
| 27 | 가정의 행복이 불자로서의 수행보다 우선이다.                     |
| 28 | 불교에서의 가족관이 이해되어야 한다.                         |
| 29 | 큰스님을 찾는 적극성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
| 30 | 사찰이나 포교당은 쉼터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
| 31 | 수행을 이끌어줄 도움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
| 32 | 불교의 핵심사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
| 33 | 수행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해야 한다.                       |

34. 불교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의 항목 중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차례로 번호를 붙이세요.

- ① 교리, 경전 공부(      )
- ② 예불과 법문 등이 포함된 법회 참석(      )
- ③ 염불 독경이나 정근, 108배, 1000배 등의 참배, 사경 등의 수행(      )
- ④ 명상이나 참선수행(      )
- ⑤ 선지식 참문 후의 화두간택과 화두점검(      )